

종합

전남도 100억대 국고보조금 ‘방치’

목포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비 잔액 등 반납 안해
감사원, 공사비 과다 지출·사회복지금 횡령 등 적발

전남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100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중앙 부처에 반환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행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한, 편법 인사로 인한 인사질서 문란, 사업지원금 사후 관리 부적절, 공사비 과다 지출, 사회복지금 횡령 등의 부적절 기관 운영실태도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전남도 본청과 산하 사업소 등의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도는 2004년 12월 농림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인 목포 농

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22억6천800만 원의 예산을 목포시로부터 반납받고도 이를 농림부에 반환하지 않는 등 2004~2008년 432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103억3천200만 원을 중앙부처에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 같은 국고의 집행잔액을 은행에 예치에 발생한 16억4천9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해 일반행

정비 등으로 사용해왔다. 전남도는 또 책공기한을 10개월~1년9개월씩 넘긴 한옥 신축 지원대상

자 22명을 그대로 둔 채 보조금 9억6천만 원을 방치했으며, 국장 3급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 승진 소요 최저연수 5년이 지나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4급 공무원 2명을 직무대리자로 결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각종 시설·도로공사의 부적절한 행정 사례도 적발됐다.

담양~북하 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 등 6개 공사에 불필요한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는 바람에 10억여원의 공사비를 과다지출했고, 삼계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등 14건의 공사 설계 내역을 중복 계상해 2005~2007년 30억 원의 공사비가 과다설계됐

다. 이밖에 1999년부터 2008년 사이 803개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한 ‘중소

기업육성기금’ 2천212억5천149만 원 중 폐업한 14개 중소기업의 상환잔액 49억2천730만 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부적절한 행정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와 주의, 시정 통보를 요구하고, 미반환한 해당 국고보조지원금은 해당 부서에 반환토록 조치했다. 또 과다 설계된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감액조치를 하도록 했다.

반면, 감사원은 전남도의 ‘나무은행제도’와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모범 사례로 통보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 2~3월 이뤄졌으며, 감사도중 해남군 등 전남지역 일부 시·군에서 대규모 사회복지예산 횡령사실이 드러나 큰 사회적 파문이 일기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적십자 호우지역 피해복구 봉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봉사원들이 13일 집중 호우 피해 지역인 나주시 문평면 금산마을 고추 농가에서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봉사원들이 13일 집중 호우 피해 지역인 나주시 문평면 금산마을 고추 농가에서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 호우 피해 160억 넘어

화순군 54억·나주시 45억·신안군 17억

지난 7일 이후 광주·전남지역에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규모가 160억 원대를 넘어섰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현재 15개 시·군에서 161억3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시·군 별로는 화순군이 54억5천700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

나주시 45억8천900만원 ▲신안군 17억1천400만원 ▲순천시 12억4천700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7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내린 강수량은 나주가 378.6mm로 가장 많았고, ▲광양 346.9mm ▲보성 325.9mm ▲화순 313.6mm 등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간이 갈수록 피해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데는 하천

수위가 줄어들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하천 및 수리시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일주일 간 전남지역에 내린 누적 강수량은 749.8mm로, 평년(725.4mm)에 비해 103.3%에 달했다. 이로 인해 상수도와 농업용수 저수율은 비가 오기 전에 비해 20%가량이 늘었지만, 평년 저수율보다는 20%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하순계 적조 ... 가두리 방류한다

전남도 18억 투입 액화산소도 공급

전남도가 적조 피해방지 최소화를 위해 적조피해 발생 직전 양식어류 방류 등 선(先) 방제 대책을 중심으로 한 피해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적조는 수온 상승으로 적조 생물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달 하순께부터 고흥 나로도~여수시 남면 금도도 사이 보물바다를 중심으로 발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수산생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남해수산연구소, 시·군, 해양 바이오연구원, 수산기술사업소 등 유관기관과 적조예보 발령 및 피해원인 조사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전남도와 시·군, 수산기술사

업소에 적조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모든 행정력과 산소 공급기, 액화산소 등 5천455대의 방제장비를 총동원해 민·관 합동으로 적조를 예방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적조 방제 사업에는 ▲적조피해 발생 전 양식어류 방류 104만 마리(5억천만 원) ▲적조 구제사업 1만3천(2억 원) ▲벤치류 시설 80대(8억 원) ▲액화산소공급 10개소(3억 원) 등 총 18억2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낭가파르밧 하산 도중 실종

고미영씨 사망 확인

히말라야 낭가파르밧 정상에 오른 뒤 하산하다가 실족 사고를 당한 여성 산악인 고미영(41세)씨가 사실상 숨진 것으로 판단되면서 구조 작업을 시선 수습으로 전환했다.

고씨의 후원사인 코오롱스포츠는 13일 “파키스탄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7시부터 구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구조대원 안전 문제와 늦은 날씨 때문에 결국 헬리콥터를 띄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날 헬기를 동원해 추락한 고씨를 발견한 파키스탄 군 당국은 구조를 위해 헬기가 산에 가까이 접근하면 눈사태가 발생해 구조대원마저 위험할 수 있다며 헬기 동원이 어렵다는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코오롱스포츠는 14일 대

히말라야 낭가파르밧 정상에 오른 뒤 하산하다가 실족 사고를 당한 여성 산악인 고미영(41세)씨가 사실상 숨진 것으로 판단되면서 구조 작업을 시선 수습으로 전환했다.

고씨의 후원사인 코오롱스포츠는 13일 “파키스탄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7시부터 구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구조대원 안전 문제와 늦은 날씨 때문에 결국 헬리콥터를 띄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날 헬기를 동원해 추락한 고씨를 발견한 파키스탄 군 당국은 구조를 위해 헬기가 산에 가까이 접근하면 눈사태가 발생해 구조대원마저 위험할 수 있다며 헬기 동원이 어렵다는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문성우 대검차장 퇴임

이인규 중수부장도



문성우(광주·53·사진) 대검찰청 차장과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이끈 이인규 중안수사부장이 14일 퇴임한다.

대검은 임제진 총장 퇴임 이후 한 달여 동안 직무대리를 맡아온 문성우 차장이 14일 오후 3시 대검찰청사 15층 회의실에서 퇴임식을 하고 검찰을 떠난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수부장도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14일 오전 11시 대검청사에서 퇴임식을 연다. 그는 지난 7월 “검사에서 소임을 다했다.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됐다”며 사표를 내고 곧바로 휴가를 떠났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돌팔이 정보(?)가 난무한다

이만의 장관, 하이브리드車 탄다

에쿠스서 아반떼급 교체

이만의(사진) 환경부 장관이 이달부터 양산이 시작된 준중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탄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주무부처로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선도하고자 장관의 업무 전용차를 3천cc급 에쿠스에서 1천600cc급 아반떼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바꾼다고 13일 밝혔다.

이 장관이 타고 다닐 아반떼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국내 출시 1호 차량으로 판매 가격은 1천900만원대다. 아반떼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km당 99g 이어서 평균 배출량 120g인 경차보다 친환경적이며, 기존 전용차인 에쿠스의 326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연비도 ℓ 당 17.8km로 기존 등급인 가솔린 아반떼 모델 15.2km보다 높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2015년 자동차 제작기준(CO2 배출량 140g/m 또는 연비 17km/ℓ)을 충족한다. /연합뉴스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 연설 리더십, 설득력 향상과정

- ① 교육목표: 대중 및 상대에게 감명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 ② 모집인원: 50명 선착순
※ 지원대상: 직장인, 일반인, 주부, 기업체 및 학생,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
- ③ 강의요일 및 시간
* 야간(매주 금요일) 19:00~21:00
- ④ 교육기간: 2009년 8월 7일~12월 18일(15주)
※ 교육요령: 실습위주교육(실습70%, 이론30%)
- ⑤ 교육과정: 대화 및 연설기법, 발표력, 남앞에서 두려움없이 말하기, 각종 행사 사회 진행 요령 및 연설문 남독 요령, 각종 원고 작성요령, 리더 및 지도자로서의 품위 향상 교육, 지방선거 공식선거 출마 연설문 작성 및 지도
- ⑥ 원서교부및등록기간
* 등록기간: 2009년 7월 13일(월)~8월 3일(월)
* 등록시간: 월~금 (오전 10시~ 오후 5시)
* 등록장소: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과 (호심관4층)
- ⑦ 등록방법(수강료: 200,000만원)
* 직접방문접수 또는 전화 신청 후 수강자 명의로 입금
* 예금계좌: 광주은행 134-122-158135 (예금주: 광주대 평생교육원)
- ⑧ 수료 후 특전: 수료증수여(총장명인), 스피치지도사 자격증수여, 각종선거연설편 파견, 각 기업체, 학원단체스피치,발표력 강사및 사회진행자 추천
- ⑨ 담당교수: 한 상 태
- 한국음변연설인준양회 회장 - 제 17대 대통령선거 유서위원장
- 한국 정치 연수원 교수 - 대통령령상 전국음변연설대회 대외본부장
- 각종 스피치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장
- 기초광역의원,광역기초단체장,국회의원후보연설회 및 연설문 작성(30년)
- 사단법인 한국음변연설회 광주본부 회장
※ 저서: 말하기 교본, 스피치 용어 연설 리더십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062)670-2167, 2168
FAX: 062670-2475 HP: 010-5692-9998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6-1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2009년 윤달 5월에 개장하실 분들은 예약을 서두르십시오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 **후손들의 무관심과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처져 붕괴된 묘, 개인이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 의식 및 친족, 이웃 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봉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주지 합창

근 대한불교조계종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